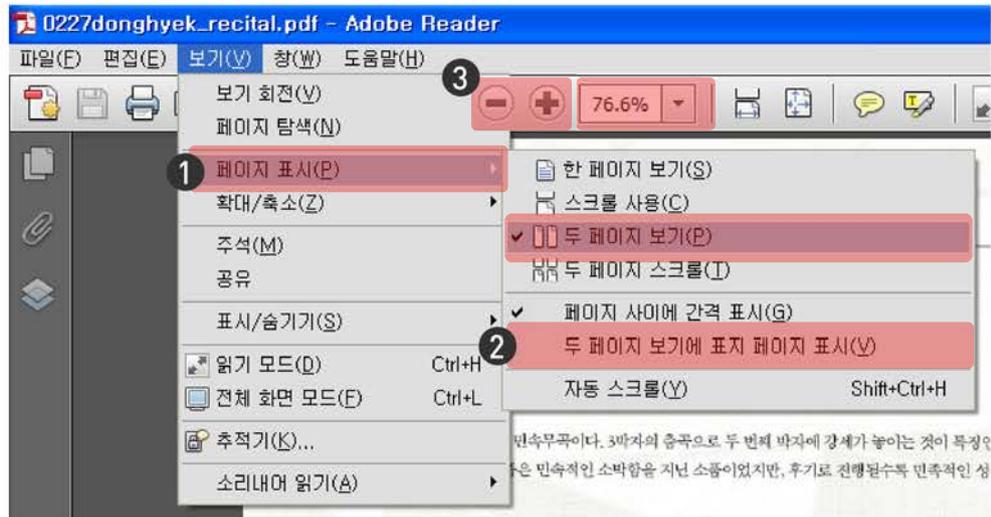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VIENNA**

**B O Y S**

**CH O I R**

이 프로그램북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0  
18**



# 새로운 비행의 역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광고사

## VIENNA BOYS CHOIR

<b>프로그램</b> PROGRAM	02
<b>아티스트</b> PROFILE	16
지휘   루이즈 데 고도이, Luiz De Godoy 합창단   빈 소년 합창단, Vienna Boys choir	
<b>프리뷰</b> PREVIEW	24
<b>인터뷰</b> INTERVIEW	26

**2018.1.27 SAT / 28 SUN 5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프로그램

## 빈 소년 합창단

루이즈 데 고도이, 지휘자

1월 27일(토) 오후 5시 - 1월 28일(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부

Europa, Europa

### 3성부 카논 '오 빛나는 동정녀여'

리브레 베르멜 드 몽세라트 (몽세라트의 붉은 책, 13-14세기)

디트리히 북스테후데 1637-1707

### 모테트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세'

프란시스 풀랑크 1899-1963

### 거룩하신 성체 (Ave verum corpus) FP 154

아드리아노 반키에리 1568-1634

### 3성부를 위한 카프리치아타 (짧은 환상)

### '동물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대위법' 1608

<사육제 목요일 밤의 향연> 중

조지 프레더릭 헨델 1685-1759

### 내 운명을 슬퍼하며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중

편곡: 루이즈 데 고도이

안토니오 비발디 1678-1741

###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을 기리나이다

<글로리아> D장조 RV 589 중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1882-1971

### 세 개의 노래

<네 개의 러시아 농부 노래(Podblyudnye)> K28 중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18

### 아베마리아

요한 요제프 폭스 1660-1741

### 살베 레지나 K.257

헤르만 폰 라이헤나우(1013-1054)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성모 안티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1791

### 칸타타 '무한한 우주의 창조를 찬미하는 그대' K.619

작사: 프란츠 하인리히 지겐하겐 (1753-1806)

편곡: 게랄드 비어트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곡르 곡은 크레디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부

## Europa, Europa

게랄드 비어트 1965-

### 고귀하고 공경하을 마리아께 인사드리나이다 겨울날

<카르미나 오스트리아카[Carmina Austriaca]> (2016) 중

세르비아 민요

### 니쉬의 온천

편곡: 게랄드 비어트

아르메니아 민요

### 양 두 마리가 내려왔네

편곡: 코미타스 바르다페트 [소고몬 소고모니안, 1869-1935]

슈타이어마르크 지방의 소몰이 노래

### 그리고 다시 눈이 녹기 시작할 때

편곡: 게랄드 비어트

에루이코 카라파토스 1962-

### 오! 내 아들이아 2017

요한 슈트라우스 2세 1825-1899

### '황제' 왈츠 Op.437 1889

편곡: 게랄드 비어트

벤자민 브리튼 1913-1976

### 글로리아

<미사 브레비스 D장조 Op.63> 중

요제프 슈트라우스 1827-1870

### '휴일' 폴카 Op.133

가사: 티나 브레크볼트

편곡: 게랄드 비어트

로베르트 슈만 1810-1856

### 예배당 Op.69-6

가사: 루트비히 울란트 1787-1862

20  
18



www.credia.co.kr

instagram.com/credia\_official

facebook.com/crediainternational

@credia

# PROGRAM

# VIENNA BOYS CHOIR

Luiz De Godoy, Choirmaster

5pm, 27 Saturday - 28 Sunday, January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PART 1

### Europa, Europa

Canon for three voices

#### **Oh, magnificent Virgin (O Virgo splendens)**

From <Red Book of Montserrat (Llibre Vermell de Montserrat, 13th century)>  
Arr. Gerald Wirth

Antonio Vivaldi <sup>1678-1741</sup>

####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ia in excelsis Deo)**

#### **We praise you (Laudamus te)**

From <Gloria in D, RV 589>

Dietrich Buxtehude <sup>1637-1707</sup>

Motet for three voices

#### **Sing to the Lord (Cantate Domino)**

Igor Stravinski <sup>1882-1971</sup>

#### **Saucer Songs (Podblyudnye)**

From <Four Russian country songs, K 28>

Francis Poulenc <sup>1899-1963</sup>

#### **Hail, true body (Ave verum corpus) FP 154**

Franz Schubert <sup>1797-1818</sup>

#### **Ave Maria**

Adriano Banchieri <sup>1568-1634</sup>

#### **Short fancy (Capricciata à tre voci)**

#### **The animals improvise counterpoint**

#### **(Contrappunto bestiale alle mente) <sup>1608</sup>**

From <Festino nella sera del Giovedì grasso avanti cena>

Johann Joseph Fux <sup>1660-1741</sup>

#### **Hail, Queen, mother of mercy (Salve Regina) K. 257**

Marian antiphon, attributed to Hermann von Reichenau 1013-1054

Georg Friedrich Händel <sup>1685-1759</sup>

#### **I shall lament my fate (Piangerò la sorte mia)**

From <Giulio Cesare in Egitto, HWV 17>  
Arr. (for boys' choir) Luiz de Godoy

Wolfgang Amadeus Mozart <sup>1756-1791</sup>

#### **You, who praise the creator of the unfathomable**

#### **universe (Die ihr des unermesslichen Weltalls**

#### **Schöpfer ehrt), cantata K. 619**

Text: Franz Heinrich Ziegenhagen 1753-1806  
Arr. Gerald Wirth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PART 2

## Europa, Europa

Gerald Wirth <sup>1965-</sup>

**Hail noble, venerable Mary**  
**(Ave nobilis, venerabilis Maria)**  
**Wintertime (Hiemali tempore)**

From <Carmina Austriaca (Austrian songs, 2016)>

Armenian folk song

**Two sheep descended**  
**(Saren kowga jowxtn ğoĉ)**

Arr. Komitas Vardapet (Soghomon Soghomonian, 1869-1935)

Eurico Carrapatoso <sup>1962-</sup>

**Oh, my boy (Ó meu menino)** <sup>2017</sup>

Benjamin Britten <sup>1913-1976</sup>

**Gloria**

From <Missa brevis in D, Op.63>

Robert Schumann <sup>1810-1856</sup>

**The Chapel (Die Capelle) Op.69-6**

Text: Ludwig Uhland 1787-1862

Serbian folk song

**The Spa at Niš (Niška Banja)**

Arr. Gerald Wirth

Cattle driving song from Styria

**And when it starts to thaw again**  
**(Und wann's amal schen aper wird)**

Arr. Gerald Wirth

Johann Strauss II <sup>1825-1899</sup>

**Emperor Waltz (Kaiserwalzer), Waltz, Op. 437** <sup>1889</sup>

Arr. Gerald Wirth

Josef Strauss <sup>1827-1870</sup>

**On holiday (Auf Ferienreisen), Fast polka, Op.133**

Text: Tina Breckwoldt

Arr. Gerald Wirth

20  
18



[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

 [instagram.com/credia\\_official](https://www.instagram.com/credia_official)

 [facebook.com/crediainternational](https://www.facebook.com/crediainternational)

 [@credia](https://www.talk.com/@credia)

<리브레 베르멜>은 바르셀로나 근교에 있는 몽세라트 베네딕토 수도원을 위해서 편집한 찬가 모음집이다. 아름다운 '검은 성모(La morenata)'로 유명한 이 수도원은 10세기 경 설립되었으며, 성모 마리아를 위한 은둔처 자리에 세워졌다. 그곳은 예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성모 성지로 매년 2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에는 방문자를 위한 숙박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성당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밤을 세웠다. <리브레 베르멜>은 이런 목적에 적당한 노래를 모은 것으로, 현재 10개의 노래가 전해진다. 어떤 것은 새로 만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아마도 기존에 있는 세속적인 노래에 종교적인 가사를 붙인 것일 것이다. 작사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오 복된 동정녀'는 이 책의 첫 번째 곡으로 순례의 노래이며(믿음 깊은 등반자들이 가사에서 언급된다) 몽세라트로 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가사에는 몽세라트를 'mons serrato', 즉 성모의 기적에 의해 만들어진 산이라는 언어유희가 포함되어 있다. 음악은 중세 시대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고풍스러운데, 각 악절은 고정되고 단순해서 순례 행렬에 부르기에 적당하고 각 성부가 서로를 쫓는 카논 형식으로 부르기에 좋다. 키타루나 말로 '카카(추적, 혹은 수색)'이라고 불렀던 카논은 종교적 경험을 위한 '추적'을 상징한다.

### 디트리히 북스테후데 1637-1707

### 모테트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세'

북스테후데는 1637년에, 아마도 홀슈타인에서 태어났다. 1639년 무렵에 가족은 헬징피르로 이주했으며 북스테후데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되었다. 디트리히는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웠을 것이다.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한 편인데,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치열한 전쟁 때문일 것이다. 1660년에는 헬징피르의 독일 교회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1667년 무렵에는 뤼베크로 떠났으며 이 도시를 위해서 일련의 작품을 썼다. 당시 뤼베크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는데, 그는 1668년에 유명한 프란츠 툰더(Franz Tunder)의 후임으로 뤼베크의 중심 교회인 성 마리아 교회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이 직책은 영향력이 크고 보수도 많았고 뤼베크 시의 '음악 감독'에 상응하는 직책이었으며,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렀다.

성 마리아 교회 오르가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이른바 '저녁음악회(Abendmusiken)'를 조직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뤼베크의 시의회와 부유한 길드 회원들을 위한 대립절 연주회 시리즈였다. 북스테후데의 작품 중 대부분은 이 '저녁음악회'나 특정한 세속 행사 및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놀랍게도 교회 음악은 매우 드물다.

북스테후데는 몇 명의 딸을 두었는데 결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후계자를 찾을 때 딸들을 계약 조건에 넣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자리에 끌린 잠정적인 후계자들(그 중 몇몇은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다)이 급히 도망가면서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달아난 후보자 중에는 헨델과 바흐도 있었다. 하지만 바흐는 1705년에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대가를 만나기 위해 400km나 걸어서 뤼베크에 갔으며, 세 달 동안이나 머물렀다.

찬미의 노래인 시편 96편은 역대기 상 16:23-33과 시편 105편의 앞머리에도 인용되어 있으며, 계약 궤를 예루살렘에 봉안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 옛 시절, 시편 96편은 신년 축하 중 야훼 하느님을 지고의 심판관으로 받들어 모시는 예식에서 노래했다.

북스테후데는 라틴어 가사에서 첫 네 절만을 썼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찬가('성부께 영광')를 붙였다. 모테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칸타타의 독특한 구조도 보여주는데, 가령 첫 합창곡 다음에 베이스가 노래하는 짧은 독창(빈 소년 합창단의 연주에서는 알토가 부른다) 부분이 좋은 예다. 그런 다음 합창단이 짧은 프리에이즈를 노래하면서 악장이 끝나며, 다시 짧은 독창과 합창단이 노래하는 최후의 '글로리아'로 이어진다.

프란시스 풀랑크는 파리에서 태어났다. 정규 음악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어머니로부터 피아노 연주를 배웠을 뿐인데,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풀랑크는 종교음악, 가곡, 실내악, 발레 음악과 관현악곡을 썼다. 그의 음악은 따뜻하고 선율미가 돋보이며 좋은 의미로 단순하다. 걸치레가 없으며, 인간성의 색다른 면에 대한 묘사와 경탄이 담겨있다. 풀랑크는 독특한 사람이었고 다다이즘, 에릭 사티, 장 콕토와 가까운 사이였다. 1936년에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가톨릭 신앙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종교음악을 쓰기 시작했다. 1950년, 언론인 클로드 로스탕은 풀랑크를 가리켜 수도사와 악동을 합친 것 같다고 묘사했다('le moine et le voyou'). 풀랑크는 1963년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널리 알려진 가사인 '아베 베룸'은 교황 인노센트 6세(1342년 사망)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 우르바노 4세가 1264년에 제정한 성체 축일을 위한 기도문이다. 기도문은 시대가 흐르면서 몇몇 부분에서 작은 변형이 있다. 중세 시대 동안 미사 예식 중 성체를 거양할 때 불려졌다. 이 기도문은 단 몇 줄의 가사에서 성탄과 수난, 성체 성사와 최후의 심판을 아우른다. 풀랑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사에서 마지막 두 줄을 제외했으며,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리는 기도를 되풀이한다.

볼로냐 출신의 반키에리는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에서 조세포 구아미에게 음악을 공부했으며, 19살 때 올리벤타노 수도원에 들어갔다. 오르가니스트와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널리 알려진 음악 논문 몇 편을 썼는데, 여기서 당대 최신 음악 이론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급진적인 이론가 반키에리를 대변하고 있다.

1614년에는 아카데미아 데이 플로리디(Academia del Floridi)를 창설했는데, 회원들은 음악과 예술을 논하고 서로를 위해 음악을 연주했다. 아카데미에서 '불협화음주의자(Il dissonante)'라 불렸던 반키에리는 모임을 위해서 몇 편의 '마드리갈 코메디'와 소규모 오페라를 썼는데, 가사에서 기묘한 유머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페스티노'는 사육제를 위한 악살곡으로, 스무 개의 작품이 담긴 모음집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현대적인 즐거움'은 축제에 참가하려 가는 길에 '옛 엄격함'을 만난다. 쥐가 뜯어 먹은 것 같은 수염을 한 노인은 채소를 끓이면 좋을 것 같은 모자를 쓰고 교장선생의 가운을 돌렸는데 등에는 끈으로 묶인 오래 된 양피지 다발이 잔뜩 매달려 있다. '옛 엄격함'은 사육제에 단호히 반대하는데, '당신의 새로운 음악이 작곡의 모든 올바른 법칙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적인 즐거움'은 지성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노인이 그 학문적인 짐보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소리로 충고한다. '내가 당신이라면, 그 낡은 종이뭉치를 식품가게 주인에게 팔겠어요. 아마 멋진 생선 절임을 만들텐데요.'

그리고 나서 두 적수는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음악 코미디를 펼친다. '카프리치아타(Capricciata)'와 '콘트라퐁토(Contrappunto)'는 바로 여기 나오는 두 곡으로, 노래를 부르는 동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가사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가 뒤섞여 있는데, 개와 고양이, 빠꾸기, 올빼미가 어떻게 새로운 양식의 음악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견고한 대위법의 법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단지 재미를 위해서 말이다.

헨델은 1724년 런던에서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를 썼으며, 그가 쓴 가장 뛰어난 극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킹스시어터에서 초연되었을 때부터 큰 찬사를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줄거리는 카이사르(체사레)가 로마 내전(기원전 49~45년)에 겪었던 이야기를 느슨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 카이사르와 대공포이우스는 로마의 통치권을 두고 싸움을 벌였다. 폼페이우스는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녀의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리는 이집트로 달아났으며 카이사르가 뒤를 쫓았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 상륙한 뒤에 프톨레마이오스의 병사들에게 살해당한다. 오페라에서 누나를 증오하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카이사르도 살해하려고 한다. 반면 클레오파트라는 강력한 로마 통치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 22살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훨씬 나이 많은 카이사르(당시 53세였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내 운명을 슬퍼하며'는 클레오파트라가 부르는 아리아로 오페라에서는 독재자로 나오는 동생이 카이사르를 살해했다고 생각하며 부르는 슬픈 노래다. 물론 카이사르는 죽지 않았으며 다시 등장해서 연인을 구하러 온다.

오페라의 초연에서 클레오파트라 역은 프란체스카 쿠초니(1696~1778)가 불렀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로 꼽혔는데, 헨델은 이 배역에서 그녀의 뛰어난 목소리를 모조리 보여주는 음악을 만들었다. 루이즈 데 고도이는 합창단을 위해서 이 감동적인 아리아를 독창과 4성부 합창단 용으로 편곡했다.

'글로리아(대영광송)'은 미사 통상문의 일부로, 가사는 중세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비발디는 최소한 세 편의 '글로리아'를 썼는데 그 중 두 개가 지금까지 전해진다. 오늘 연주되는 작품(RV 589)은 큰 사랑을 받는 인기작으로, 100개가 넘는 녹음(빈 소년 합창단이 부른 것도 있다)이 있고 '샤인(1996)'이나 '헌터(2011)' 등 여러 편의 영화에 멋지게 쓰였다. 그 중에는 빈 소년 합창단을 다룬 쿠어트 파우돈의 영화 '실크로드를 따라 부르는 노래(Songs along the Silk Road, 2008)'도 있다.

안토니오 비발디는 1715년 무렵 그가 그가 음악교사 겸 작곡가로 근무했던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Ospedale della Pietà)의 고아 소녀들을 위해서 '글로리아'를 썼다. 오스페달레는 본래 십자군을 위한 숙소로 설립된 곳으로, 십자군 운동이 끝난 후에 고아와 유기아들을 위한 복지 시설로 바뀌었다.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를 '스카페타'라는 곳에 유기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베이비박스'의 선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네치아에는 네 개의 오스페달레가 있었고 이런 고아들을 위한 시설이었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무역 업무를 가르쳤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정규 음악 교육을 베풀었다. 네 개의 오스페달레에는 모두 합창단이 있었고, 서로 경쟁하면서 베네치아 최고의 음악가들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다. 17세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가 소녀들의 합창단과 60명이 넘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로 유명했다. 젊은 신부 비발디는 1703년에 오스페달레에 들어갔지만 건강이 워낙 좋지 않아서 미사를 집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를 받았으며 관악기도 연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조로 유명했으며 광범위한 음악 지식을 지닌 사람이었다. 비발디는 바이올린과 음악이론을 가르쳤고 합창단 지휘자로서 모테트, 합창곡, 나중에는 협주곡까지 다양한 작품을 썼다. 그의 지도 아래 소녀들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소녀들은 장막 뒤에서 귀족 청중을 상대로 연주했는데, 베네치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이들의 연주를 들으러 몰려들었다. 비발디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후인 1770년에는 장-자크 루소가 연주를 관람했다. 그는 <고백록>에서 그 경험을 묘사했는데, 장막 뒤에서의 연주와 그 아름다움, 음악의 효과, 건물의 모습을 기록한 다음 마지막에는 음악가들을 직접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트라빈스키가 직접 붙인 영어 제목은 약간 혼란스러운데, 아마도 번역을 잘못 했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어로 'blyudo'는 받침접시 (saucer)가 아니라 깊이 파인 접시(deep dish)를 뜻한다. 'podblyudnye'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접시 앞에서'라는 뜻이다. 농부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런 종류의 노래들은 겨울에 부른다. 소녀와 여인들이 접을 치기 위해서 보석이나 리본 같은 개인적인 물건을 물에 넣은 접시에 넣고 옷으로 쓴다. 어떤 것이든 노래를 부르고 끝난 다음에는 물건을 아무 것이나 집어서 '영광'이라는 외침 속에 꺼내든다. 그러면 서 노래하는 이들은 방금 부른 노래의 가사대로 그 다음 한 해 동안 소유자의 행운을 축복해주는 것이다.

스트라빈스키는 이반 사하로프(1807~1863)의 모음집에서 네 개의 민요를 골랐다. 첫 번째 곡은 푸쉬킨이 1825-32년에 걸쳐 발표한 소설 <에프게니 오넨긴>에서 '접시 노래'로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노래는 가수들이 염원하는 운명을 묘사한 것으로, 금과 보물로 포장된 길을 노래한다. 치기시는 모스크바강의 지류인 아우자강 변에 있는 마을이다. 세 번째 노래는 귀금속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강꼬치고기를 다루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매우 분명하다. 사실, 강꼬치고기는 벨로제르스크시의 문장에도 등장한다. 벨로제르스크는 누게라트(이 노래에도 등장한다)와 함께 러시아의 가장 오래 된 다섯 개 마을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곳이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는 지금은 빈의 일부로 편입된 리히텐탈에서 1797년에 태어났으며, 교사였던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웠다. 슈베르트는 아마도 빈 소년 합창단 역대 단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는 1808년에 딱 두 명을 뽑는 치열한 합창단 오디션을 통과해서 단원이 되었다. 그의 스승은 안토니오 살리에리였는데, 슈베르트의 재능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슈베르트는 합창 학교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학교를 다니며 최초의 작품을 썼지만 그곳의 생활환경이나 음식은 좋아하지 않았다. 형에게 사과를 보내 달라면서 쓴 편지를 보면 '귀리죽만 먹고 지탱하는 것도,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며 몇 시간씩 다음 끼니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고 했다. 슈베르트는 엄청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악으로 생활을 유지하지는 못했으며, 교사 활동을 해서 간신히 살았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일했으며 나중에는 에스테르하지 백작의 헝가리 영지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슈베르트는 8곡의 교향곡과 6곡의 미사곡, 그리고 실내악곡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지만 역시 가곡이 가장 유명한데, 괴테와 하이네, 셰익스피어 등 여러 시인들의 시에 붙인 가곡을 600곡 이상 썼다. 그는 오랜 병고에 시달리다 서른 한 살에 세상을 떠났다.

슈타이어마르크 지방의 히르텐펠트에서 태어난 요한 요제프 폭스는 그라츠와 인골슈타트에서 논리학, 외국어, 음악 및 법률을 공부했다. 1690년부터는 빈에서 살았는데, 쇼텐키르헤(스코틀랜드 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일했다. 1705년 무렵에는 스테판 대성당의 음악감독이 되었고 1713년에는 황실 기록에 부카펠마이스터로 등장했으며, 1715년에는 카펠마이스터, 즉 황실 경당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되었다. 17세기 당시 시골 출신으로서는 대단한 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폭스는 작곡가로서 대단한 명성을 누렸으니, 오스트리아-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대가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의 방대한 작품(모차르트의 작품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유명한 루트비히 리터 폰 괴헬이 그의 작품을 정리했다)에는 여러 곡의 대규모 오페라와 400곡이 넘는 교회음악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팔레스트리나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폭스는 또한 큰 영향력을 지닌 음악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파르나수스로 가는 여정)>은 대위법 이론을 분석하는 선구적인 저서로 바흐도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안티폰인 '살베 레지나'는 가톨릭 교회의 성무일과에 쓰이는 기도문으로 마지막 성무를 마치고 부르며 또 삼위일체 대축일부터 대림절까지 노래한다. 가사는 11세기의 베네딕트 수사이자 음악, 수학, 천문학 등 다방면에 능했던 헤르만 폰 라이헤나우로 알려져 있다. 폭스는 여러 벌의 '살베 레지나'를 썼다

### 칸타타 '무한한 우주의 창조를 찬미하는 그대' K.619

작사: 프란츠 하인리히 지겐하겐 (1753-1806)  
편곡: 게랄드 비어트

모차르트의 K.619는 그가 죽은 해에 쓰여졌으며, 동료 프리메이슨 단원이자 친구였던 프란츠 하인리히 지겐하겐을 위한 것이었다. 함부르크 출신의 상인이었던 지겐하겐은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 곡의 가사에서 지겐하겐은 일종의 범세계적인 종교를 설파하는데, 이는 모든 종교의 신들이 하나의 신성한 존재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프리메이슨 단원들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형제로 보았다. 이 칸타타는 스트라스부르 인근에 있는 사회주의자 집단의 찬가로서 만들어졌다.

이 모차르트의 작품은 아주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극적으로 변한다. 보습(쟁기 날)을 쳐서 칼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성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요엘서 3:10, 미가서 4:1-4, 이사야서 2:4]

### 게랄드 비어트 1965-

### 고귀하고 공경하올 마리아께 인사드리나이다 겨울날

<카르미나 오스트리아카 (Carmina Austriaca)> (2016) 중

게랄드 비어트(Gerald Wirth)의 교향곡 '카르미나 오스트리아카'는 소년 합창단, 혼성 합창단, 대형 교향악단을 위해 쓰여진 총 26개의 중세 음유시인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유럽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음악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두 곡의 작곡가는 아직까지 미상으로 남아있다. 두 곡 모두 카를 오르프의 작품으로 유명해진 1936년작 <카르미나 부라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고귀하고 공경하올 마리아께 인사드리나이다(Ave nobilis venerabilis Maria, CB 11)'는 동정녀 마리아를 향한 찬가이며, '겨울날(Hiemali tempore, CB 203)'은 외설적이고, 불경스러운 음주가인데, 겨울에 만취한 도박꾼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에 대해 노래한다 -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게랄드 비어트는 이번 한국 투어를 위해 특별히 이 두 곡을 소년 합창단에 맞게 재편곡하였다.

### 아르메니아 민요

### 양 두 마리가 내려왔네

편곡: 코미타스 바르다페트 (소고몬 소고모니안, 1869-1935)

코미타스 바르다페트(Komitas Vardapet), 본명 소고몬 소고모니안은 아르메니아 음악의 아버지로 불린다. 또한 그는 중세음악학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소고몬 소고모니안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 그는 총명함은 물론 음악적 재능과 노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893년에 사제로 서품되면서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코미타스(Komitas)를 선택했는데, 이는 중세 시인의 이름을 본떠 지은 것이다. 코미타스는 트빌리시와 베를린에서 공부하였으며, 유럽 전역과 오스만 제국까지 여행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3000곡 이상의 아르메니아 노래들을 수집했다.

### 에루이코 카라파토소 1962-

### 오! 내 아들이 2017

에루이카 카라파토소(Eurico Carrapatoso)는 포르투갈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한 작곡가이며, 그의 작품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고 있다. '오! 내 아들이(Ó meu Menino)'는 아기 예수를 위한 자장가이며, 2017년 11월에 쓰여져서 빈 소년 합창단과 루이즈 데 고도이에게 헌정되었다.

브리튼의 미사곡은 신앙고백(Creed)이 빠진 짧은 미사 통상문 작품이다. 가사는 라틴어로 되어 있으며, 1959년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성가대의 소년 단원들을 위해 쓰여졌다. 브리튼은 소년들의 목소리를 목관악기처럼 다뤘으며, 일상의 소리들을 그의 작품 안에 담아냈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발랄하고 쾌활하며, D장조가 두드러지는 '글로리아'는 특히 그렇다. 반면 극적인 '하느님의 어린 양(Agnus)'는 d단조로 대조를 이루며 B플랫장조로 다시 또 다시 대조를 이룬다. 소년들이 '세상의 죄(peccata mundi)' 부분을 부르는 동안, 오르간은 자동차 경적을 흉내내어 연주한다. 끝으로 평화를 위한 기도가 속삭이는 듯한 애원으로 마무리 되는데, 이는 마치 불확실함을 말하고자 하는 듯 하다.

로베르트 슈만 1810-1856

예배당 Op.69-6

가사: 루트비히 울란트 1787-1862

서적상의 아들로 태어난 슈만은 어릴 적부터 피아니스트로서 재능을 보였다. 또한 어린 나이에 작곡과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11살이 되던 1821년에는 라이프치히로 넘어가 법학을 공부하였지만, 정작 많은 시간을 음악과 문학에 썼다 (이후에는 여자와 삼페인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후 하이델베르크에서 법학 공부를 잠시 한 이후에는 가족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고는 라이프치히로 다시 이사해서 비크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1834년 슈만은 음악비평지인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발행하였다. 그는 매우 통찰력 있는 비평가였고, 그의 평론은 많은 젊은 작곡가들이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세기 초 당대의 유행이었던 비밀과 신비를 다룬 이야기에 깊이 빠져있던 그는 때때로 두 가지 필명으로 평론을 썼다.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느낌일 때는 에우제비우스(Eusebius)를, 강렬한 욕망을 느꼈을 때는 플로레스탄(Florestan)을 필명으로 사용했다. 슈만은 비크 선생의 딸이자 유망한 피아니스트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클라라의 아버지는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이들이 마침내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슈만은 끊임없이 작곡을 했다. 하지만 그 밖의 일들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라이프치히의 멘델스존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지휘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확신이 부족했다. 또 어쩌면 마치 팝스타(근본적으로 낭만주의 시대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와 같이 유명해진 클라라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우울증이 생겨났고, 아마도 매독에 걸리며 증세는 더 심해지게 되었다. 1854년부터 슈만은 환영을 보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곳에서 1856년에 세상을 떠났다.

슈만은 피아노 협주곡, 첼로 협주곡, 교향곡과 대규모 합창곡, 그리고 150곡이 넘는 가곡을 썼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내밀한 성향의 피아노 독주곡과 실내악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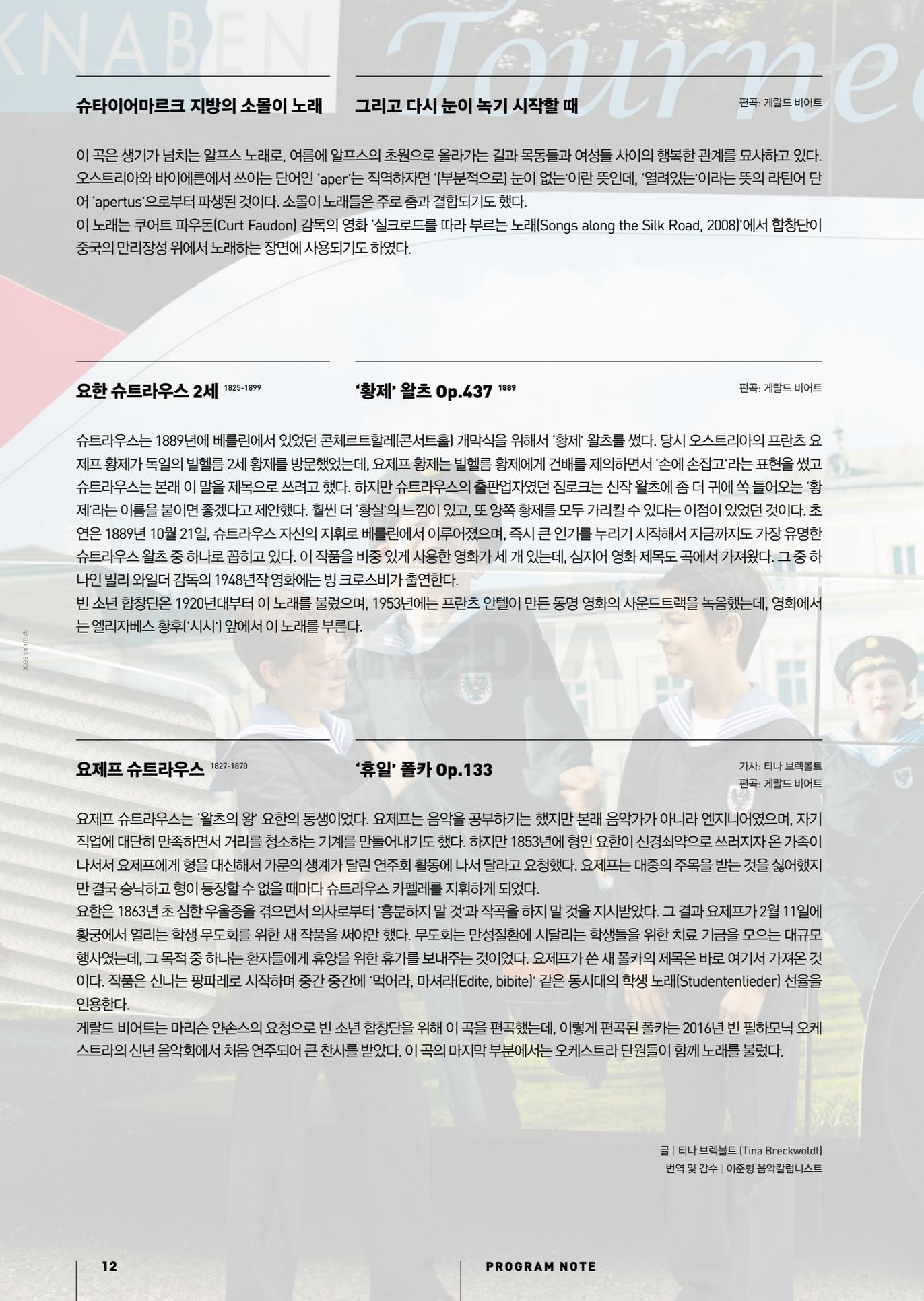
예배당을 뜻하는 'Die Capelle'은 1805년에 쓰여진 시이다. 이는 독일 부르밀링겐에 있는 작은 레미기우스 예배당을 지칭한다. 이 예배당은 10세기에 두 골짜기가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졌는데, 이는 지금까지 성금요일 행렬의 장소이기도 하다. 침울함이 느껴지는 울란트의 시는 불길한 예감들로 가득한데, 이는 마치 골짜기와 언덕, 아래와 위, 소년의 기운찬 노래와 장례식, 행복과 슬픔을 대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동!, 목동!'에서 쓰인 두 개의 느낌표는 결국 죽음 또한 삶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주는 듯 하다.

세르비아 민요

니쉬의 온천

편곡: 게랄드 비아트

'니쉬의 온천(Niška Banja)'은 세르비아의 온천 마을에 관한 익살스러운 곡이다. 어떤 문장들은 이 곡의 빠른 리듬을 유지시키기 위해 아무 뜻 없이 쓰이기도 했는데 'trallala', 'ladeeda', 'doobedoo' 등이 그 예시이다.



이 곡은 생기가 넘치는 알프스 노래로, 여름에 알프스의 초원으로 올라가는 길과 목동들과 여성들 사이의 행복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에서 쓰이는 단어인 'aper'는 직역하자면 '(부분적으로) 눈이 없는'이란 뜻인데, '열려있는'이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 'apertus'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소몰이 노래들은 주로 춤과 결합되기도 했다.

이 노래는 쿠르트 파우돈(Curt Faudon) 감독의 영화 '실크로드를 따라 부르는 노래(Songs along the Silk Road, 2008)'에서 합창단이 중국의 만리장성 위에서 노래하는 장면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1825-1899

**'황제' 왈츠 Op.437** 1889

편곡: 게랄드 비어트

슈트라우스는 1889년에 베를린에서 있었던 콘체르트할레(콘서트홀) 개막식을 위해서 '황제' 왈츠를 썼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독일의 빌헬름 2세 황제를 방문했었는데, 요제프 황제는 빌헬름 황제에게 건배를 제의하면서 '손에 손잡고'라는 표현을 썼고 슈트라우스는 본래 이 말을 제목으로 쓰려고 했다. 하지만 슈트라우스의 출판업자였던 짐로크는 신작 왈츠에 좀 더 귀에 쏙 들어오는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훨씬 더 '황실'의 느낌이 있고, 또 양쪽 황제를 모두 가리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초연은 1889년 10월 21일, 슈트라우스 자신의 지휘로 베를린에서 이루어졌으며, 즉시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슈트라우스 왈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작품을 비중 있게 사용한 영화가 세 개 있는데, 심지어 영화 제목도 곡에서 가져왔다. 그중 하나인 빌리 와이더 감독의 1948년작 영화에는 빙 크로스비가 출연한다.

빈 소년 합창단은 1920년대부터 이 노래를 불렀으며, 1953년에는 프란츠 안텔이 만든 동명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녹음했는데, 영화에서는 엘리자베스 황후('시시')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요제프 슈트라우스** 1827-1870

**'휴일' 폴카 Op.133**

가사: 티나 브렉볼트  
편곡: 게랄드 비어트

요제프 슈트라우스는 '왈츠의 왕' 요한의 동생이었다. 요제프는 음악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본래 음악가가 아니라 엔지니어였으며, 자기 직업에 대단히 만족하면서 거리를 청소하는 기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1853년에 형인 요한이 신경쇠약으로 쓰러지자 온 가족이 나서서 요제프에게 형을 대신해서 가문의 생계가 달린 연주회 활동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요제프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을 싫어했지만 결국 승낙하고 형이 등장할 수 없을 때마다 슈트라우스 카펠레를 지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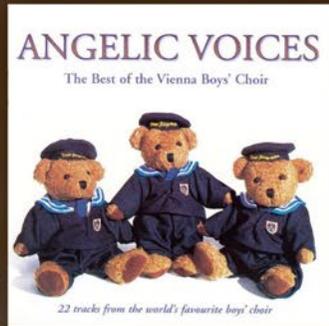
요한은 1863년 초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의사로부터 '흥분하지 말 것'과 '작곡을 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그 결과 요제프가 2월 11일에 황궁에서 열리는 학생 무도회를 위한 새 작품을 써야만 했다. 무도회는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 기금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였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환자들에게 휴양을 위한 휴가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요제프가 쓴 새 폴카의 제목은 바로 여기서 가져온 것이다. 작품은 신나는 파파레로 시작하며 중간 중간에 '먹어라, 마셔라(Edite, bibite)' 같은 동시대의 학생 노래(Studentenlieder) 선율을 인용한다.

게랄드 비어트는 마리슨 안손스의 요청으로 빈 소년 합창단을 위해 이 곡을 편곡했는데, 이렇게 편곡된 폴카는 2016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에서 처음 연주되어 큰 찬사를 받았다.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글 | 티나 브렉볼트 (Tina Breckwoldt)  
번역 및 감수 | 이준형 음악칼럼니스트

# 빈소년 합창단

## 베스트 추천 앨범



### 천사의 목소리

순수하고 티없이 맑은 천사 같은 목소리의 빈소년 합창단 베스트 앨범이다. 음악적 성숙함이 어우러진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프래의 "Pie Jesu", 헨델의 "할렐루야"에서부터 "Scarborough Fair" 등 민요까지 명연이 담긴 베스트 앨범!



### AROUND THE WORLD

빈소년 합창단의 목소리로 세계의 유명 민요들을 들을 수 있는 앨범이다. 친숙한 미국의 민요 'Clementine', 영국의 민요인 'The Keeper Would A-Hunting Go'를 포함하여 프랑스의 샹송인 'Belle Qui Tiens Ma Vie' 등 수록



# 2018 CREDIA SEASON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lub BALCONY  
& CIELOS Club

합리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부담없는 선택! 1577-5266

credia.co.kr • • •

## PIANO RECITAL SERIES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1.10(WED)-11(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Dong Hyeok Lim Piano Recital  
3.7(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머레이 페라이어 피아노 리사이틀**  
Murray Perahia Piano Recital  
3.17(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Eugeny Kissin Piano Recital  
10.28(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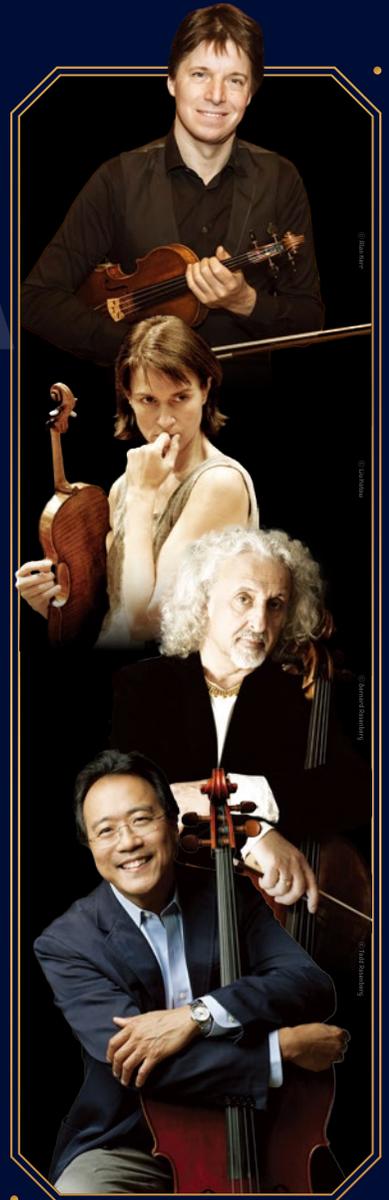
## CHAMBER ORCHESTRA SERIES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Joshua Bell &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5.31(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빅토리아 뮐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Viktoria Mullova & Geneva Camerata  
6.8(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Mis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6.16(SAT) 롯데콘서트홀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Yo-Yo Ma & Silkroad Ensemble  
10.17(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STARDUST SERIES

### 자용 리사이틀 - I AM NOT THE SAME

Ji Recital  
2.24 (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리처드 용재 오닐 - DUO

Richard Yongjae O'Neill Recital  
3.31 (SAT) 롯데콘서트홀

### 신지아 리사이틀 - 反轉 반전

Zia Hyunsu Shin Recital  
4.28 (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바이츠 콰텟 with 임동혁

Veits Quintet with Dong Hyeok Lim  
8.14 (TUE) 롯데콘서트홀

### 스테판 재키브, 콘라드 타오 & 제이 캠벨 - 보헤미안

Stefan Jackiw, Conrad Tao & Jay Campbell - Bohemian  
12.20 (WED) 롯데콘서트홀

## INTERNATIONAL ORCHESTRA

###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Santa Cecilia Orchestra & Antonio Pappano  
11.15 (THU) - 16 (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협연: 다닐 트리포노프(15일), 조성진(16일)



열정의 마에스트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130년 전통의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역사적 첫 내한!



## PARK CONCERT

### 디즈니 인 콘서트

Disney in Concert  
9.8 (SAT)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 조수미 콘서트 - One Night in Paris

Sumi Jo Concert - One Night in Paris  
9.9 (SUN)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 FAMILY & ATTRACTIONS

###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1.27 (SAT) - 28 (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유키 구라모토 - Romance in Heartstrings

Yuhki Kuramoto Concert  
5.23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디즈니 인 콘서트 - FROZEN

Disney in Concert - FROZEN  
5.19 (SAT) - 20 (SU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Christmas Concert - Yuhki Kuramoto with Friends  
12.26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루이즈 데 고도이

지휘자

1988년 브라질 무지다스크루제스에서 태어난 루이즈 데 고도이는, 어릴 적 들세 프리모의 지휘하에 합창단 활동을 하며 음악으로 진로를 정한다. 10년간 상 파울로 극장 음악원의 레나토 피게이레도 교수 밑에서 피아노를 배워 상 파울로 대학교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수석 졸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 독창, 오르간 연주 등도 공부했다. 루이즈 데 고도이는 포르투갈 카스텔로 브라코 응용 예술학교에서 피아노 연주 석사 학위를 받았다.

어린 나이에 전문 음악가의 길로 들어선 루이즈 데 고도이는 15살에 상 파울로 오페라하우스의 전속 연습 코치로 활동을 시작했다. 17살 때에는 모차르트 오페라 <극장 지배인 (Der Schauspieldirektor)> 보ieldieu의 <하얀 옷의 여인 (La Dame Blanche)>과 더불어 쿠르트 바일의 <소시민의 칠거지악 (Die sieben Todsünden)> 같은 오페라 프로덕션에서도 참여하기도 했다.

루이즈 데 고도이는 젊은 음악가로서 브라질, 독일, 프랑스 및 미국에서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했다. 2009년도에는 전 세계 학생들 중 유일하게 미국 국무부 유네스코 음악 프로그램에서 장학생으로 초청을 받아 보스턴, 탕글우드, 뉴욕과 워싱턴에서 학업과 공연을 병행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여름 페스티벌 '무지카 나스 몬타이나스' (포수스지카우다스, 브라질) 오페라 스튜디오에서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며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기> 등을 지휘했다. 2010년 오스트리아에 처음 방문 했을 때에는 비엔나 대학에서 브라질 합창 음악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합창단 '코루 노부 문두'를 탄생시켰고, 지금까지도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13년도에는 쾰른 음대에서 피아노 독주,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했다. 또한 루이즈 데 고도이는 오스트리아와 브라질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활발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마린 알습, 시안 에드워즈, 잔카를로 게레로, 이지 오우에 등과 함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하며 계속해서 계발을 이어가고 있다.

루이즈 데 고도이는 2013년부터 비엔나 음악공연예술대학의 피론코브 교수를 사사하며 오케스트라 지휘를, 인그룬 휘세네거와 에르윈 오토너를 사사하며 합창단 지휘를 공부해왔다. 이후 빈 징아카데미(Wiener Singakademie)에서 성악가이자 오페라코치로 활동하며 구스타보 두다멜, 사이먼 래틀,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사이먼 영 같은 지휘자들과 함께 작업했다.

루이즈 데 고도이는 칸틸레나 여성 실내 합창단과 굼폴드스키흐너 슈파첸 어린이 합창단의 예술감독을 보좌하며 베이징 오페라 극장을 비롯한 여러 극장에서 지휘 및 협연을 하였다. 2015년부터는 빈 징아카데미의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빈 소년 합창단 모차르트 팀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LUIZ DE GODOY

Conductor (Kapellmeister)

Luiz de Godoy was born in 1988 in Mogi das Cruzes, Brazil. He found his path toward music as a choirboy in his hometown, under the conduction of Dulce Primo. After ten years of instruction in Piano under Prof. Renato Figueiredo at the Music School of the Opera House of São Paulo, he graduated from his first musical degree, with honors, in piano solo from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There, he also participated in courses in orchestral conducting, solo singing and organ. Luiz de Godoy holds a Master Degree (concert piano) from the School of Applied Arts in Castelo Branco (Portugal).

De Godoy made forays into the professional world very early. As early as fourteen, he served as a répétiteur in projects for the São Paulo opera house, among others. As a stand-in at the age of 17, he went on stage in opera productions like Mozart's Schauspieldirektor, Boieldieu's La Dame Blanche and Kurt Weill's Die Sieben Todsünden.

The young musician has taken part in several master classes in Brazil, Germany, France and the USA. In 2009, he was chosen among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s recipient of a scholarship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USA) to take part in the "Fusion Arts Exchange Programm on music Composition and Performance" a UNESCO music programm leading him to study and perform in Boston, Tanglewood, New York and Washington DC.

From 2010 to 2012, he was artistic director of the opera studio of the summer festival "Música nas Montanhas" (Poços de Caldas, Brazil), where he conducted Puccini's Gianni Schicchi, among other works. At his first time in Austria, in 2010, de Godoy conducted a workshop on Brazilian choral music at the University of Vienna, from which the "Coro Novo Mundo" emerged, for which he still remains artistic director today.

During the academic year 2012-2013, he further studied solo piano, choral and orchestral conducting at the Cologne Hochschule für Musik und Tanz. As an orchestral conductor, de Godoy is active in both Austria and Brazil and continually seeks to further develop himself in master classes with personalities such as Marin Alsop, Sian Edwards, Giancarlo Guerrero and Eiji Oue.

Since 2013, Luiz de Godoy studies at the Hochschule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in Vienna under Prof. Pironkov (Orchestral conducting), Ingrun Fußenegger and Erwin Ortner (Choral conducting). Since then he has been working as both a répétiteur and singer in the Wiener Singakademie, where he has already collaborated with conductors such as Gustavo Dudamel, Sir Simon Rattle, Valery Gergiev and Simone Young.

He is an assistant to the artistic director in the women's chamber choir Cantilena and the children's choir Gumpoldskirchner Spatzen, who de Godoy conducted and accompanied on several music halls such as the Peking Opera.

Since 2015, he is an assistant t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Wiener Singakademie and since 2016 he is the choir master of the Mozart choir of the Vienna Boys' Choir.



© LUKAS BECK

## 빈 소년 합창단

소년들은 빈의 궁정 예배당에서 1296년부터 노래를 해왔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가 궁을 포함한 모든 살림을 빈으로 옮기면서 '호프무지크카펠레(궁정 예배당)'와 빈 소년 합창단을 설립했다. 수백 년간 빈 왕실은 모차르트, 살리에리, 브루크너 등과 위대한 음악가들을 지원했으며, 요제프 하이든, 미하엘 하이든, 프란츠 슈베르트는 빈 궁정 합창단의 성기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18년까지는 소년 합창단원들은 궁정에서만 노래하다가 1920년에 사조직으로 합창단이 재설립되었다. 1926년까지, 2,482명의 빈 소년 합창단은 97개 국가에서 1,000여 회의 투어 공연을 하였다. 현재 게랄트 비어트가 예술감독이자 대표이다.

9세부터 14세 사이로 이루어진 합창단원들 100명은 4개의 합창단으로 나뉜다. 각 합창단은 학기 중 9주에서 11주 정도의 연주여행을 다닌다. 동시에 합창단은 매년 300회 가량의 연주회를 하며 전 세계 50만여명의 관중 앞에 선다. 정기적으로 유럽, 아시아, 호주, 미국의 투어를 하고 있는 이들의 첫 번째 투어 공연은 1936년 칠레였다.

빈 소년 합창단은 1498년부터 일요일마다 빈 궁정 예배당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과 함께 공연해왔다. 2012년에는 합창단 전용 홀인 MuTh를 개관하였는데, 400석 규모의 최신 시설로 아티스트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의 레퍼토리는 중세부터 현대음악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른다. 투어 레퍼토리는 모테트와 가곡이 중심을 이루면서 빈 음악을 편곡해서도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오페라나 월드뮤직도 공연한다.

빈 소년 합창단의 최초의 레코딩은 1907년 밀랍녹음기로 녹음한 것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43장의 셀락 음반(shellac record)과 55장의 싱글, 128장의 LP와 CD를 주요 레이블과 녹음해 왔다. 2015년에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장기 계약을 맺어 그 해 첫 음반이 발매되었다. 또한 빈 소년 합창단의 세계적인 인기는 26편의 영화와 17편의 TV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 뉴욕에서 활동하는 영화 제작자 쿠르트 파우돈(Curt Faudon)과의 공동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 편의 음악 영화가 개봉되었다. 네 번째 작품인 '선한 목자(Good Shepherds)'를 제작 중에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오슬로 필하모닉,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궁정 음악단의 명예회원이기도 하다)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에 출연한 것으로, 2012년과 2016년에 빈 소년 합창단은 마리스 안손스의 지휘로 공연을 했다.



대표 겸 예술감독  
**게랄트 비어트**

빈 소년 합창단 공식 홈페이지 [www.wsk.at](http://www.wsk.at)

## WIENER SÄNGERKNABEN

Boys have been singing at Vienna's Imperial Chapel since 1296. In 1498, Maximilian I (HRR) moved his court to Vienna, lock, stock, and choir, thus founding the "Hofmusikkapelle" (Chapel Imperial), and the Vienna Boys Choir. Over the centuries, the Viennese Court attracted great musicians like Isaac, de Monte, Fux, Caldara, Gluck, Salieri, Mozart, and Bruckner; Joseph Haydn, Michael Haydn, and Franz Schubert were themselves choir boys. Until 1918, the boys sang exclusively for the court. In the 1920s, the choir was reestablished as a private organisation. Since 1926, 2482 Vienna Boys Choir has sung 1000 tours in 97 different countries. Gerald Wirth is the Artistic Director and president.

Today, there are 100 choristers between the ages of nine and fourteen, divided into four touring choirs. Each choir spends nine to eleven weeks of the academic year on tour. Together, the choirs give around 300 concerts each year, attended by almost half a million spectators around the world. The choir regularly tours Europe, Asia and Australia, and the Americas. The choir's first journey is to Chile to place in 1936.

On Sundays, the boys perform with members of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and of the Vienna State Opera Chorus in Vienna's Imperial Chapel, as they have done since 1498. In 2012, the choir opened its own concert hall, MuTh; the state-of-the-art facility seats 400 and has proven highly popular with both artists and audience.

The choir's repertoire includes everything from medieval to contemporary music. Motets and lieder form the core of the touring repertoire, as do the choir's own arrangements of Viennese music. The choir also performs children's operas and world music.

The first ever sound recording of the choir was made on a wax cylinder in 1907; since then, the boys have recorded 43 shellacks, 55 singles, 128 LPs and 150 CDs on every major label. In 2015, the choir signed a longterm deal with Deutsche Grammophon. The first CD was released in 2015. 26 films and 17 TV documentaries attest to the choir's international appeal. In 2008, the choir began collaboration with New York-based filmmaker Curt Faudon; since then, three major music films have been released; a fourth, "Good Shepherds", is in production.

The Vienna Boys Choir performs with major orchestras, such as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the Vienna Symphony Orchestra, the Staatskapelle Berlin, the Oslo Philharmonic, the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conducted by Riccardo Muti (honorary member of the Chapel Imperial), Andrés Orozco Estrada, Christian Thielemann, Simone Young. The particular highlights are the appearances at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s New Year's Concert. In 2012 and 2016, the boys performed under the baton of Mariss Jansons.

President & Artistic Director

**Gerald Wirth**

# VIENNA BOYS CHOIR

## MEMBERS OF MOZARTCHOR



LUIZ DE GODOY



ANGELO



DANIJAL



EMMET



FABIAN



FELIX



FILIP



FLORIAN



HYUNSEO



JAKOB



JAN



JETMIR

# WIENER SÄNGERKNABEN

## MEMBERS OF MOZARTCHOR



JINWOOK



JULIAN



JULIAN



KII



MANUEL



MARTIN



MICHELE



MIRKO



NOAH



PRINCE



SHUNTARO



VALENTIN

2018 CREDIA PIANO RECITAL SERIES

# THE PIANISTS

첫 전국투어!

**1. 11. THU**  
SEOUL ARTS CENTER

**조성진**

Seong-Jin Cho Piano Recital

TICKET **SOLD OUT** | 10.18

All Schubert로 돌아오다

**3. 7. WED**  
SEOUL ARTS CENTER

**임동혁**

Dong Hyeok Lim Piano Recital

TICKET OPEN 2017.11.7 | 11.8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연주

**3. 17. SAT**  
SEOUL ARTS CENTER

**머레이 페라이어**

Murray Perahia Piano Recital

TICKET OPEN 2017.11.21 | 11.22

절대 피아니스트의 귀환

**10. 28. SUN**  
SEOUL ARTS CENTER

**예프게니 키신**

Evgeny Kissin Piano Recital

TICKET OPEN 2018.3.22 | 3.23

CREDIA



합리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부담없는 선택! Club **BALCONY**

지금 클럽발코니 회원에 가입하시고 2018 크레디아 기획공연을 10-30%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세요! 공연은 계속 추가됩니다.

연회비 1년 3만원 · 가입문의 1577-5266 · www.clubbalcony.com

5. 31. THU

SEOUL ARTS CENTER

정열과 우아함의 완벽한 조합! 조슈아 벨 & ASMF의 8년만의 귀환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

Joshua Bell &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BWV 1041 ·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6. 8. FRI

SEOUL ARTS CENTER

냉정의 바이올리니스트 몰로바와 첫 내한하는 스위스 대표 체임버, 제네바 카메라타

**빅토리아 몰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Victoria Mullova & Geneva Camerata

아이브스 "대답없는 질문" · 거쉬윈/케네 "포기와 베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Op. 64 · 베토벤 교향곡 No. 8, Op. 93



6. 16. SAT

LOTTE CONCERT HALL

첼로의 음유시인, 미샤 마이스키와 비엔나 체임버가 만드는 반짝이는 비엔나 사운드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Misc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33 · 모차르트 교향곡 No. 39, K.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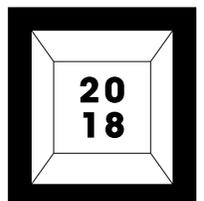


2018 CREDIA CHAMBER MUSIC SERIES

# All About Chamber

지금 CIELOS Club 에 가입하시고 2018 체임버 뮤직 패키지 최상위석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세요!

· 가입문의 1577-5266



CHAMBER MUSIC SERIES

# 빈 소년합창단이 전하는 아름다운 신년 인사

## 세계 음악사를 대표하는 소년 합창단

'세계 음악의 수도'라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에는 전 세계 음악팬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수많은 음악관련 단체들이 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오페라는 오케스트라와 오페라의 세계 No. 1이며,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콘서트홀 무지크페라인잘과 오페라하우스 빈 슈타츠오퍼 등도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요, 애호가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음악의 성지로 통한다. 유서 깊은 최고의 문화도시답게 이들 연주단체와 공연장 등은 모두 150년이 훌쩍 넘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음악전통에 있어 빈 소년합창단의 역사는 실로 독보적이다. 1498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칙령에 의해 황실 성가대로 출발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520년의 음악 전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빈 소년합창단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은 이들은 그야말로 세계 음악사의 빛나는 별들이었다. '교향곡의 아버지' 요제프 하이든과 '가곡의 왕' 프란츠 슈베르트가 소년 시절 합창단원으로 활약했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일요일마다 호프부르크에서 장엄미사를 노래하는 빈 소년합창단을 수차례 지휘했다. 궁정 오르가니스트이자 후기 낭만주의 교향악의 최후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안톤 브루크너도 소년 합창단을 정기적으로 지휘하며 이들과 깊은 음악적 인연을 맺었다. 이런 전통에 따라 모두 100여명으로 이뤄진 빈 소년합창단도 네 개의 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루크너팀이 그것이다. 한 마디로 빈 소년합창단은 오스트리아, 아니 지난 500여 년간 세계 음악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맑은 음색의 완벽한 화음을 지닌 소년 합창단

놀랍도록 오랜 역사를 지닌 합창단이지만 빈 소년합창단이라고 세월의 질곡에서 자유로웠던 건 아니다. 황실 직속의 소년 성가대로 활약하던 중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곧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이 되어 제국 자체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황실 소속 소년 합창단도 갈 곳을 잃고 방황했으며, 400년 가까이 지속된 음악 전통도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때 열성적인 단장 요제프 슈니트가 발 벗고 나서 1924년 순수 민간단체인 빈 소년합창단으로 새롭게 태어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제국 소년합창단 시절 단검이 장식된 군대 간부후보생 풍의 단복을 입고 있다가, 오늘날의 화사한 푸른 색 세일러복으로 유니폼이 바뀐 것도 바로 이때다. 현재 소년 단원들은 빈의 제2구 레오폴트슈타트에 있는 장대한 바로크 궁전인 아우가르텐 궁(Palais Augarten)에서 기숙하며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한술밥을 먹으며 함께 노래하고 공부하는 만큼 서로 간의 호흡이 완벽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러는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민요와 가곡, 종교음악, 왈츠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팝과 영화음악, 월드뮤직까지도 노래하며 폭넓은 음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역시나 소년들이 들려주는 이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운 음악 때문인 것이다.

## 한국과의 아름다운 인연

빈 소년합창단은 의외로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합창단이다. 2012년 9월 빈 소년합창단 역사상 최초로 여성 지휘자를 임명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김보미 선생이었다(현재 연세대 교수). 그는 동시에 빈 소년합창단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지휘자이기도 했다. 김보미 지휘자는 스물 여섯 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모차르트 팀을 맡아 황실 미사, 오스트리아 전국 투어, 전 세계 순회공연 등의 뼈대한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현재 빈 소년합창단에는 한국인 소년들이 단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1986년 첫 외국인 단원이 입단한 이후 오스트리아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도 누구나 오디션을 통해 빈 소년 합창단에 입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우리나라 소년들도 그들의 미성을 전 세계에 뽐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의 이런 깊은 인연 덕분에 '아리랑' 같은 우리 민요도 곧잘 레퍼토리로 노래되고 있다.

빈 소년합창단은 음악으로 이룩한 평화와 행복의 상징과도 같다. 깊고 오래된 전통,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모니, 경계 없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모든 이에게 기쁨과 웃음, 행복을 선사한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소년 합창단, '천사들의 목소리' 빈 소년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2018년 새해를 어느 때보다 힘차게 시작해보자.



글 | 황지원 음악칼럼니스트



©SOMMONEE

CREEDIA

그 의 슈 베 르 트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2018.3.7 WED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CREEDIA INTERNATIONAL 후원 | KOREAN AIR BANNER CLASSICS 티켓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A석 3만원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SAC Ticket 02-580-1300

프로그램 | 슈베르트 즉흥곡 D.935 Op.142,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 B플랫장조 D.960 | F. Schubert Impromptus D.935 Op.142, F. Schubert Piano Sonata No.21 B Flat Major D.960



**Q. 빈 소년 합창단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면요?**

(루이즈 데 고도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음악을 사랑해야 하고 빈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원해야 합니다. 빈 소년 합창단이 되면 모든 단원들은 학교, 합창단,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건 강한 목소리도 중요하고, 또한 리듬과 박자에 대한 감각도 중요하지요. 만약 아이들이 이미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가창 경험이 있다면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이번 내한 프로그램 중에서 단원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어려워하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인가요?**

(루이즈 데 고도이) 단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슈만의 <예배당>을 가장 좋아하고, 스트라빈스키의 러시아 농부 노래를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공연 때 즐겁게 들어주세요.

**Q. 일년동안 아시아, 유럽, 미국 투어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하는데, 빈 소년 합창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게랄드 비버트 음악감독) 우리는 매우 오랜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투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팀들이 합창단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있지요. 전문가들의 도움과 오랜 노하우가 합쳐져서 모든 투어와 공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Q. 빈 소년 합창단만이 가진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을까요?**

(게랄드 비버트 음악감독)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년 합창단은 테너와 베이스를 기본 구성으로 공연을 하고 있지만, 빈 소년 합창단은 전세계를 투어하는 유일한 보이소프라노 소년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와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투어하는 소년 합창단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빈 소년 합창단만큼 많은 투어를 성공시킨 합창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단원들은 빈 소년 합창단을 떠난 후에는 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나요?**

(루이즈 데 고도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상급학교(Gymnasium)에 진학합니다. 이 교육 시스템도 빈 소년합창단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다른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될 때 음악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1/4 정도가 성악가, 지휘자, 연주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창단 경험은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영향을 줍니다.

**Q. 음악이 단원들의 인성과 성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게랄드 비버트 음악감독) 물론이죠. 음악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이미 많은 사회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해왔지요. 합창단에서 경험하는 모든 음악적 활동들은 단원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좋은 경험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 균형 잡힌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Mitscho Fanghanel

진짜 지용의 시작

## 지용 'I AM NOT THE SAME'

J.S.바흐 :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988,  
바흐/부소니 편곡, 라벨 : 라 발스, 존 케이지 : 4'33", 슈만: 아라베스크 외

2018.2.24(토)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협찬 | RICHARD MILLE  
A SWISS WATCHER ON THE MOVE



당신을 기다리며

## 리처드 용재 오닐 'DUO'

베토벤 : 첼로와 비올라를 위한 듀오, '아이글래스'  
조지 벤자민 : 비올라, 비올라  
모차르트 :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K. 424  
J.S.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슈베르트 :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협연: 리처드 용재 오닐)

Violin 신지아, Cello 문태국, Viola 이수민,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2018.3.31(토)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Saitida



## 반전

달과 태양을 동시에 품다  
신지아 '반전'

J.S.바흐: 샤콘느,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단조, op. 45  
시마노프스키: 세 개의 신화, op. 30  
비에니아프스키: 오리지날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15

Piano 아키라 에구치

2018.4.28(토)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angwook Lee



2018 크레디아 스타더스트 시리즈

'스타더스트(Stardust)'는 천부적 재능이 뿜어내는 황홀한 매력, 마력을 뜻하는 명사로 크레디아의 빛나는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콘서트 시리즈입니다.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기주세요.



공연장 사이 방수하는 곡의 흐름을 방해해요.



옆자리를 발로 차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 공연 관람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만, 클럽발코니에서 예매해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15만 공연 애호가들의 선택

JOIN CLUBBALCONY

예매고수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WIENER**

**SÄNGER**

**KNABEN**

주최

**CREZIA**  
INTERNATIONAL

후원

**KOREAN AIR**

#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